

黃元御의 六經 氣化學說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相協*

Research on the Six Channel Qi Metabolism Theory of Huangyuanyu

Lee Sang-Hyup*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 Huangyuanyu's interpretation of the six channel diseases of the *Shanghanlun* were examined based on contents on the six channel qi metabolism theory in his works, *Shanghanxuanjie*, *Shanghanshuoyi*, and *Sishengxinyuan*.

Methods : Contents related to the six channel qi metabolism theory in the *Shanghanxuanjie*, *Shanghanshuoyi*, and *Sishengxinyuan* were extracted and examined to identify a fundamental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x channel qi metabolism theory.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ix channel diseases were organized.

Results : Huang's understanding of the six channel diseases in the *Shanghanlun* could be summarized by the six channel. Its features could be explained as following. First, in examining the principles of the controlling qi[司氣] and constitutionally influenced transformation[從化], the rise and fall of the body's yang qi was emphasized. Second, center qi[中氣] was considered important, the taiyin Spleen being the key to life and death. Third, the pathology of 'earth dampness/water cold/wood stagnation' due to weakness of the center qi was suggested. Fourth, the principle of boosting-yang-suppressing-yin was emphasized in treatment, with criticism of the nurturing-yin-extinguishing-fire method.

Conclusions : In understanding the six channel diseases in the *Shanghanlun*, Huangyuanyu focused on the body's yang qi and center qi based on key theories such as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and 'six channel qi metabolism' theories. His perspective coul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Zhangzhongjing's work more comprehensively.

Key words : Huangyuanyu, qi metabolism theory, center qi, controlling qi, constitutionally influenced transformation

*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Hyup.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52-57 Yangjeonglo, Busanjin-gu, Busan, 47227, South Korea

Tel : *** - **** - **** E-mail : sanghyup@de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anuary 21, 2022), Revised(February 7, 2022), Accepted(February 7,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緒論

黃元御의 이름은 玉路요, 字는 元御이며, 또 다른 字는 坤載이고, 號는 研農이고, 別號는 玉楸子이다.¹⁾ 清代 山東省 昌邑縣 사람으로 1705년(清代 康熙 44년)에 출생하여 1758년(清代 乾隆 23년)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54세였다.²⁾

‘六經의 氣化學說’이란 天人相應의 관점으로 『素問』의 運氣篇에 나오는 六氣의 標本中氣 理論을 응용하여 『傷寒論』의 六經證治 規律을 분석한 것이다.

六經의 氣化學說과 관련된 내용을 임상과 연결시켜 최초로 설명하기 시작한 의학자는 金代의 劉河間이며, 그 후 清代에 이르면 『傷寒論』을 六經의 氣化學說적 관점으로 病症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盧之頤, 張志聰, 陳修園, 黃元御 등과 같은 의학자들이 있으며,³⁾ 이후로도 많은 유명한 醫家들, 예를 들어 王朴莊, 陸九芝, 唐宗海 등도 모두 六經의 氣化學說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⁴⁾

그 중 黃元御는 氣化學說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研究하였기에 造詣가 아주 깊었으며, 그의 전체 의학서적 속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融會貫通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生理·病理·藥理를 밝혀 해석한 것이나 立法·處方·藥物 構成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氣化’를 근본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氣化學說로 『傷寒論』을 詮釋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⁵⁾ 이라고 보았다.

黃元御의 六經 氣化學說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으로는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⁶⁾에서 그의 의학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하고 있지만 六經의 氣化學說에 대해 설명한 내용

은 부족해 보이고, 중국의 논문으로는 ‘黃元御六氣治方思想探析’⁷⁾과 ‘黃元御氣化理論研究’⁸⁾가 있는데, 대략 살펴본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黃元御가 저술한 서적으로는 『素問懸解』, 『靈樞懸解』, 『難經懸解』, 『傷寒懸解』, 『金匱懸解』, 『四聖心源』, 『四聖懸樞』, 『傷寒說意』, 『素靈微蘊』, 『長沙藥解』, 『玉楸藥解』 등이 있는데,⁹⁾ 그 중에 『傷寒懸解』는 1748년(乾隆 13년)에 저술한 것으로 自序에서 말하기를 “醫學과 관련된 藏書室에 있는 祕書를 참고하여 어떻게든 張仲景의 『傷寒論』을 읽어보았지만,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많은 注釋을 널리 수집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살펴보았으니, 비록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傷寒家 수십~백여 종류를 살펴보면서 3년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오히려 아득하여 우러러보면서 따라갈 수 없었다. …… 그러한 이유는 古聖의 서적에 訓詁를 잘못된 것이 진실로 많았기에, 후대의 사람들이 注釋을 잘못된 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 仲景의 저서가 거의 얼마나 세월이 흘렀던가! 천 년의 세월 동안 운동면지투성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지금의 著作은 비록 힘들게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부득이할 것이다.”¹⁰⁾ 하였다.

『傷寒說意』는 1754년(乾隆 19년)에 완성된 책인데, 自序에서 말하기를 “仲景의 『傷寒論』은 그 言語가 深奧하지만 그 意味는 昭明하니, 言語로써 풀이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意味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 意味만 분명하게 안다면 그 言語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¹¹⁾ 하였으니, 이미 『傷寒懸解』라는 책을

1)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2730.
2) 李雲. 中國人名辭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1. p.786.
3)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795.
4)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797.
5)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13.
6) 崔桓壽, 金容辰, 尹暢烈.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4. Vol.8.

7) 胡謙, 方向明. 黃元御六氣治方思想探析. 山西中醫學院學報. 2012. Vol.13 No.3.
8) 劉賓 外1人. 黃元御氣化理論研究. 遼寧中醫藥大學學報. Vol.20 No.10. 2018.
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324.
1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7. “考鏡靈蘭之秘, 誦讀仲景『傷寒』, 一言不解, 遂乃博搜箋注, 傾瀝群言, 縱觀近古傷寒之家數十百種, 歲歷三秋, 猶爾茫然, 仰鑽莫從. …… 然則古聖之書, 晦於訓詁者固多, 而後人之心, 誤於箋疏者不少也. …… 仲景著書, 幾何年矣, 而千載塵封, 迄無解者. 今日之作, 縱爾敞精神, 不得已也.”
1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傷寒說意), 人民衛生出版

저작하였지만 이후에 言語로만 표현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에 다시 『傷寒說意』라는 책을 지어 그 意味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책이다.

『四聖心源』은 1753년(건륭 18년)에 저술되었는데, 自序에서 말하기를 “醫學에는 黃帝·岐伯·越人·仲景의 네 분 聖人の 책이 있어서 세월을 이어 영광을 다투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고 시대는 바뀌면서 스승의 學藝가 제자에게 전수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후세의 의학자들이 그 뜻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미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註解하였으며, 己巳년 2월에는 『四聖心源』을 지어서 內傷과 外感에 해당되는 각종 질병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하여 풀이함으로써 앞선 聖人들의 醫業을 계승하고자 한다.”¹²⁾고 하였으니, 그는 당시 유행하던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黃帝, 岐伯, 扁鵲, 張仲景을 ‘四聖’으로 추앙하면서 많은 이론서를 정리하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黃元御가 저작한 서적 중 『傷寒懸解』, 『傷寒說意』, 『四聖心源』에 나오는 六經의 氣化學說과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그가 『傷寒論』의 六經病을 해석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四聖心源·六氣解·六氣治法』에서 말하기를 “張仲景의 『傷寒論』은 ‘六經’으로써 법칙을 세웠으니, ‘六氣’를 따르기 때문이다.”¹³⁾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六經의 變化는 비록 많지만, 총괄한다면 ‘六氣’에서 벗어날 수 없다.”¹⁴⁾고 하였다.

六氣는 風·熱·暑·濕·燥·寒을 말하는 것인데, 『素問·天元紀大論』편에서는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 而化生萬物矣.”¹⁵⁾라고 하였으니, 天에 있어서는 六氣의 기운이 펼쳐지고, 地에 있어서는 五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黃元御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天과 地의 中氣에 해당하기에 天氣를 받아서 六腑를 만들고, 地氣를 받아서 五臟을 만드는 것이니, 六氣와 五行이 모두 사람 몸에 갖추어져 있다.”¹⁶⁾고 하여 ‘六氣’와 ‘五臟六腑’를 서로 연결하여 六經의 氣化學說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黃元御는 ‘六氣’라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하나의 經이 질병에 걸리면 해당되는 經의 氣가 나타난다고 보았으니, 『四聖心源·六氣解·六氣偏見』에서 설명하기를 “厥陰病이면 風盛하고, 少陰病이면 熱盛하고, 少陽病이면 暑盛하고, 太陰病이면 濕盛하며, 陽明病이면 燥盛하고, 太陽病이면 寒盛한 것인데, 하나의 氣가 偏盛한 것은 다른 氣의 偏虛에 기인한다. 즉 厥陰의 風이 왕성한 것은 土金이 虛해서이고, 少陰의 熱이 왕성한 것과 少陽의 暑가 왕성한 것은 金水가 虛해서이며, 太陰의 濕이 왕성한 것은 水木이 虛해서이고, 陽明의 燥가 왕성한 것은 木火가 虛해서이며, 太陽의 寒이 왕성한 것은 火土이 虛해서이다.”¹⁷⁾고 하였다.

결국 黃元御는 하나의 氣가 왕성해지는 것의 원인을 그것을 제어하는 相克과 相侮 관계에 있는 氣가 虛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社, p.532, 1990. “仲景『傷寒』, 其言奧隲, 其意昭明, 解言則難, 說意則易, 其意了然, 其言無用矣.”

1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 “醫有黃帝, 岐伯, 越人, 仲景, 四聖之書, 爭光日月, 人亡代革, 薪火無傳. 玉楸子懼後世作者不達其意, 既解『傷寒』『金匱』, 乃於己巳二月, 作『四聖心源』, 解內外百病, 原始要終, 以繼先聖之業.”

1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4. “仲景『傷寒』, 以六經立法, 從六氣也.”

1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4. “六經之變化雖多, 總不外乎六氣.”

1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62~363.

1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7. “人爲天地之中氣, 乘天氣而生六府, 乘地氣而生五臟. 六氣五行, 皆備於人身.”

1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8. “厥陰病則風盛, 少陰病則熱盛, 少陽病則暑盛, 太陰病則濕盛, 陽明病則燥盛, 太陽病則寒盛也. 以此氣之偏盛, 定緣彼氣之偏虛. 如厥陰風盛者, 土金之虛也. 少陰熱盛, 少陽暑盛者, 金水之虛也. 太陰濕盛者, 水木之虛也. 陽明燥盛者, 木火之虛也. 太陽寒盛者, 火土之虛也.”

니, 이것은 『素問·六微旨大論』에서 말한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¹⁸⁾이라고 하여 亢害承制論에 따른 調和와 均衡을 통하여 생명 현상이 발현되는 것이며, 그 均衡이 깨어짐으로써 大病이 생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병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칙은 『素問·五運行大論』에서 말한 “氣有餘, 則制己所勝, 而侮所不勝. 其不及, 則己所不勝, 侮而乘之, 己所勝, 輕而侮之.”¹⁹⁾라고 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六經의 병증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少陰經·少陽經·陽明經은 手經이 ‘司氣’하고 足經이 ‘從化’하며, 厥陰經·太陰經·太陽經은 足經이 ‘司氣’하고 手經이 ‘從化’한다.”²⁰⁾고 하였다.

經脈에는 12개가 있는데, ‘司化’하는 것이 6개의 經脈이고, ‘從化’하는 것이 6개의 經脈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從化’하는 것은 氣化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 모두 ‘司氣’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十二經脈이 ‘六氣’로 統攝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司氣’하는 것의 병증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四聖心源·六氣解·本氣衰旺』에서 말하기를 “병이 생겼을 때 혹은 司化하는 것의 本氣가 나타나거나, 혹은 從化하는 것의 本氣가 나타나고, 혹은 司化하는 것이 從化하는 氣가 나타나거나, 혹은 從化하는 것이 司化하는 氣가 나타나는 것들은, 전적으로 ‘本氣의 衰旺’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다.”²¹⁾고 하였다.

본 문장은 ‘本氣의 衰旺’이 질병의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서 더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經氣’의 성쇠를 관찰하여 ‘主令’하는 것이 왕성하면 ‘化氣’하는 것이 그것을 따르고, ‘化氣’하는 것이 왕성하면 ‘主令’하는 것이 그것을 따른다고 본 것으로, 모든 것이 ‘本氣’의 虛實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六經病을 분류하여 질병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太陽病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足太陽膀胱經은 ‘寒水’로써 主令하고, 手太陽小腸經의 ‘火’는 이것을 따라 ‘寒’으로 변화한다.”²²⁾고 하였고,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足太陽은 寒水이니 手太陽의 火는 마땅히 寒을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太陽經의 질병으로 陽虛하면 手太陽이 ‘寒水’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太陽이 寒水を 따라 化氣하지 않고 ‘少陰을 따라 熱化’한다.”²³⁾고 하였다.

이곳에서 말하는 陽盛과 陽虛란 인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陽氣’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四聖心源·六氣解·太陽寒水』에서 말하기를 “대개 水는 蟄藏하는 것이 본성이니, 火가 내부에 저장되고 水가 외부에서 수렴시키는 것을 平人이라고 부른다. 木火는 裏部를 주관하기에 內部로부터 生長하는 까닭으로 裏氣는 항상 溫한 것이고, 金水는 表部를 주관하기에 外部로부터 收藏하는 까닭으로 表氣는 항상 清한 것이다. …… 陽氣가 저장되면 外清而內溫하고, 陽氣가 빠져나가면 內寒而外熱하는 것이다. 外部의 寒水가 熱火로 바뀌고 内部의 溫泉이 寒氷으로 바뀌게 되면, 外部는 더욱 熱해지고 内部는 더욱 寒해지면서 生氣의 뿌리가 단절되어 죽게 된다.”²⁴⁾고 하였다.

1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91.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

1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86. “氣有餘, 則制己所勝, 而侮所不勝. 其不及, 則己所不勝, 侮而乘之, 己所勝, 輕而侮之.”

2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少陰、少陽、陽明, 手經司氣, 而足經從化者也; 厥陰、太陰、太陽, 足經司氣, 而手經從化者也.”

2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9. “病則或見司化之本氣, 或見從化者之本氣, 或司化者而見從化之氣, 或從化者而見司化之氣, 全視乎本氣之衰旺焉.”

2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足太陽膀胱以寒水主令, 手太陽小腸之火從而化寒.”

2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2. “足太陽, 寒水也, 手太陽之火, 應從寒化, 而太陽經病, 陽虛則手太陽化氣於寒水, 陽盛則手太陽不從寒化而從少陰之熱化.”

또한 이것을 사람의 ‘裏氣’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으니, 『傷寒說意·裏氣解』에서 말하기를 “風寒이 사람을 손상시켰을 때 바로 寒이 되거나 熱이 되지 않으니 사람의 ‘裏氣’를 봐서 변화하는 것이다. 裏氣가 和平하면 腑熱이 만들어지지 않고 臟寒이 요동치지 않으면서 시종일관 經에 있고 內傳하지 않을 것이니, 다만 그 表邪를 發散할 것이니 溫清補瀉하는 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裏氣가 和平하지 않으면서 表邪가 外束하는 경우에는, 腑陽이 왕성한 자는 陽鬱하여 內熱이 생기고, 臟陰이 왕성한 자는 陰鬱하여 內寒이 생기는 것이니, 寒熱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은 전적으로 몸 속에 있는 것이다.”²⁵⁾고 하였다.

太陽經은 寒水로써 ‘主令’을 삼는다고 하였는데, 足太陽膀胱經은 水에 속하지만 手太陽小腸經은 火에 속하여 火와 水는 완전히 다른 六氣인데도 ‘寒水’로써 거느리는 것에 대하여 『四聖心源·六氣解·太陽寒水』에서 설명하기를 “水는 下部에 위치하고 있지만 上部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니 離卦 가운데 있는 陰爻가 水의 뿌리인 것이다. 離卦 가운데 있는 陰爻가 내려와 坎卦와 사귀면서 水로 변화하는 것이니, 水가 火에서 하강한 까닭으로 丙火(小腸)가 壬水(膀胱)로 化氣하는 것이다. 火가 변화하여 水가 되면 熱이 寒을 따라 변화하는 까닭으로 太陽經의 六氣는 ‘水火’를 함께 거느리고 있지만 ‘寒水’만으로 명칭한 것이다.”²⁶⁾고 하였다.

太陽經의 病證이 발현하는 양상에 대해서 『四聖心源·六氣解·本氣衰旺』에서 설명하기를 “足太陽經은 寒水가 司化하기에 手太陽經의 火는 主令하는 것을 따라 寒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手太陽經이 질병이 들어 熱한 것은 從化하는 것이 스스로 그 本氣를 드러낸 것으로 火의 성질이 원래 熱하기 때문이고, 足太陽經이 질병으로 熱한 것은 司化하는 것이 從化의 氣를 드러낸 것으로 寒水가 원래 火를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²⁷⁾고 하였고, 또한 『四聖心源·六氣解·太陽寒水』에서 말하기를 “癸水(腎)가 溫하면서 壬水(膀胱)가 寒하면 치료되고, 癸水(腎)가 寒하면서 壬水(膀胱)가 熱하면 질병이 생긴다. 癸水(腎)가 病들면 반드시 寒이 생기고, 壬水(膀胱)가 病들면 대부분 熱이 생긴다. 丁火(心)는 癸水(腎)에서 化生하는 까닭으로 少陰의 藏은 최고로 쉽게 寒으로 病들고, 壬水(膀胱)는 丙火(小腸)에서 化生하는 까닭으로 太陽의 府는 최고로 쉽게 熱로 病든다. 이러한 까닭으로 질병에 걸려 寒해지는 것은 癸水(腎)를 책망해야지 壬水(膀胱)를 책망해서는 안 되고, 질병에 걸려 熱해지는 것은 壬水(膀胱)를 책망해야지 癸水(腎)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²⁸⁾고 하였으니, 太陽經과 少陰經이 서로 表裏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寒熱’로써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太陽病을 ‘本病’과 ‘壞病’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陽의 本病

太陽의 本病이란 邪氣가 臟腑로 들어가지 않고

2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4. “蓋水以鬱藏爲性, 火秘於內, 水斂於外, 是謂平人. 木火主裏, 自內而生長之, 故裏氣常溫; 金水主表, 自外而收藏之, 故表氣常清. …… 陽藏則外清而內溫, 陽泄則內寒而外熱. 外易寒水而爲熱火, 內易溫泉而爲寒冰, 外愈熱而內愈寒, 生氣絕根, 是以死也.”

2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7. “風寒之傷人也, 不能爲寒, 不能爲熱, 視乎人之裏氣而爲變者也. 裏氣和平, 則腑熱不作, 臟寒不動, 終始在經, 不能內傳, 但當發散其表邪, 不必用溫清補瀉之劑也. 裏氣非平而表邪外束, 腑陽盛者, 則陽鬱而生內熱; 臟陰盛者, 則陰鬱而生內寒, 寒熱之分途, 全在乎中.”

2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3. “緣水位於下而生於上, 離中之陰, 水之根也. 離陰降而下交坎位而化水, 水降於火, 是以丙火化氣於壬水. 火化而爲水, 則熱從寒化, 故太陽之氣, 水火並統, 而獨以寒水名也.”

2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9. “足太陽以寒水司化, 手太陽之火, 從令而化寒者常也. 而手太陽之病熱, 是從化者自見其本氣, 以火性原熱. 足太陽之病熱, 是司化者而見從化之氣, 以寒水原從火化也.”

2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4. “癸水溫而壬水寒則治, 癸水寒而壬水熱則病. 癸水病則必寒, 壬水病則多熱. 以丁火化於癸水, 故少陰之藏, 最易病寒; 壬水化於丙火, 故太陽之府, 最易病熱. 是以病寒者, 獨責癸水而不責壬水; 病熱者, 獨責壬水而不責癸水也.”

經脈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傷寒懸解·六經分篇』에서 설명하기를 “六經病은 ‘太陽’이라는 하나의 經에서 총괄해서 거느리고 있는데, ‘臟腑’로 들어가지 않고 다만 ‘經脈’에 있는 것은 비록 六經을 두루 傳變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發汗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太陽의 表證이 있는 것이다.”²⁹⁾고 하였으니, 太陽經이 六經의 經病을 모두 거느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太陽經이 六經을 통솔하여 거느리는 방법으로는 ‘營衛’를 통하여 전신에 氣血을 보내주는 것과 관계되는데, 『傷寒懸解·太陽經提綱』에서 말하기를 “風寒이 營衛를 폐쇄하면 氣鬱하여 透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惡寒’이 드러나는 것이다. ‘寒’은 太陽의 令氣이다.”³⁰⁾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陽本病』에서 말하기를 “‘營氣’는 肝에서 담당하면서 衛氣의 根本이 되고, ‘衛氣’는 肺에서 담당하면서 營氣의 枝葉이 되는데, 營氣와 衛氣는 中宮에서 化生한다. 飲食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넘쳐나면서 經絡으로 傳輸되는데, 精專한 것은 脈中으로 운행하기에 ‘營氣’라고 부르고, 剽悍한 것은 脈外로 운행하기에 ‘衛氣’라고 부르는 것이다. 營衛는 金과 木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지만, 모두 太陽에서 거느리는 것이므로 太陽經의 질병에 傷衛·傷營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³¹⁾고 하였다.

그리고 太陽病이 傳變되는 규율에 대해서 『傷寒懸解·太陽本病』에서 설명하기를 “邪氣가 營衛에 있을 때 解散하지 못하면 혹은 腑로 들어가거나 혹은 臟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裏氣에 따라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이니, ‘陽衰’하면 太陰經으로 들어가

면서 寒이 되고, ‘陰衰’하면 陽明經으로 들어가면서 熱이 되는 것 이외의 길은 없다. 營衛에 막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 귀중한데, 처음 치료할 때 차도가 없으면 훗날 모든 變症이 생겨나면서 스스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³²⁾고 하여 太陽經은 六經의 長이면서 겸하여 營衛를 통솔하고 있는데, 營衛가 처음 병들었을 때 밖으로는 經絡을 해결하면서 안으로 臟腑를 조절하여 臟寒이 요동하지 않고 腑熱이 생기지 않게 하면 훗날 入臟·入腑의 질환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 『傷寒懸解·太陽本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太陽의 ‘經病’은 風·寒의 두 가지일 뿐이다. 風邪일 경우에는 桂枝湯을 사용하고, 寒邪일 경우에는 麻黃湯을 사용하며, 風에 寒을 겸하거나 寒에 風을 겸하는 경우에는 桂麻各半湯이 있다. 風에 火鬱이 겸하거나 寒에 水停을 겸한 경우에는 大·小青龍의 방제가 있고, 風寒이 이미 풀렸는데 內燥한 경우에는 白虎湯의 淸金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風寒이 투출되지 못하여 內濕한 경우에는 五苓散의 利水시키는 방제가 있고, 風寒이 外散되었지만 血熱이 裏鬱한 경우에는 桃核承氣湯과 抵當湯·丸의 설계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太陽病 風寒의 本病이요 處治의 定法인 것이다.”³³⁾고 하였다.

(2) 太陽의 壞病

‘壞病’이란 誤治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병증을 말하는 것으로, 『傷寒論』에 보면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³⁴⁾라고 한 것과

2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0. “六經之病, 總統於太陽一經. 其不入臟腑, 而在經脈者, 雖遍傳六經, 而未經汗解, 則必有太陽之表證.”

3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2. “風寒閉其營衛, 氣鬱不能透泄, 則外見惡寒. 寒者, 太陽之令氣也.”

3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0. “營司於肝, 爲衛之根; 衛司於肺, 爲營之葉. 營衛二氣, 化於中宮. 飲食入胃, 遊溢精氣, 傳輸經絡, 精專者行於脈中, 命曰營氣; 剽悍者行於脈外, 命曰衛氣. 營衛分司於金木, 而皆統於太陽, 故太陽經病, 有傷衛傷營之不同.”

3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1. “邪在營衛, 失於解散, 則或入於腑, 或入於臟, 視其人之裏氣爲分途. 陽衰則入太陰而爲寒, 陰衰則入陽明而爲熱, 無異路也. 貴於營衛方病, 初治不差, 則後日諸變, 無自生矣.”

3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61~62. “太陽經病, 不過風寒二者而已. 風用桂枝, 寒用麻黃. 風而兼寒, 寒而兼風, 則有桂麻各半之方. 風而火鬱, 寒而水停, 則有大小青龍之制. 風寒已解而內燥, 則有白虎淸金之法. 風寒未透而內濕, 則有五苓利水之劑. 風寒外散, 血熱裏鬱, 則有桃核承氣, 抵當湯丸之設. 此皆太陽風寒之本病, 處治之定法也.”

관련되어 있다.

黃元御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설명 하였으니, 『傷寒懸解·六經分篇』에서 말하기를 “陽盛하여 陰을 잃어버리면 陽明의 腑로 들어가고, 陰盛하여 陽을 잃어버리면 太陰의 臟으로 들어간다. 다른 經의 裏證이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太陽의 表邪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太陽經에 있어서는 ‘壞病’이 되지만 해당되는 經에 있어서는 ‘本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病에 있어서는 ‘壞病’이라는 출입문을 만든 것이고, 太陽病 이외에는 또한 ‘諸經篇’으로 설계한 것이다.”³⁵⁾고 하였다.

黃元御는 病邪가 太陽經에 있을 때 상응하는 약물을 잘 사용하여 풀어주면 壞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醫師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實한 것을 더 實하게 하고 虛한 것을 더 虛하게 하며, 若汗·若吐·若下·若溫鍼을 사용하되 補瀉를 다르게 시행한다면 마침내 壞病이 되면서 太陽病의 本色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곧 壞病이란 誤治로 인한 陽明病과 三陰病을 말하는데, 陽盛한데 그 陰을 瀉한다면 陽明經으로 들어가고, 陰盛한데 그 陽을 亡失한다면 三陰經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① 太陽壞病이 陽明腑로 들어가는 進路

『傷寒說意·太陽壞病入陽明府證』에서 말하기를 “太陽經의 질병이 ‘陽盛亡陰’하면 陽明經의 胃腑로 들어간다.”³⁶⁾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陽壞病入陽明去路』에서 말하기를 “陽明經은 燥金을 따라 化氣하기에 陽旺한 사람은 表鬱하면 燥가 動한다. 그러나 誤治를 하지 않았다면 津液이 아직 耗損되지 않았으니 燥氣가 어찌 갑자기 왕성해질 수 있겠는가? 汗·下·溫鍼으로 津液을 망실하면 燥氣가 크게 일어나

고 ‘經’과 ‘腑’의 邪氣가 합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드는 것이다.”³⁷⁾고 하여, 비록 三陰病의 煩한 함만 같진 않지만 ‘陽盛亡陰’한 것이기에 경솔하게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② 太陽壞病이 太陰臟으로 들어가는 進路

『傷寒說意·太陽壞病入太陰臟證』에서 말하기를 “太陽經의 질병이 ‘陰盛陽亡’하면 太陰經의 脾臟으로 들어간다.”³⁸⁾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陽壞病入太陰去路』에서 말하기를 “太陰經은 濕土로써 主수를 삼기에 陰盛한 사람은 病邪가 太陽에 있어서 表鬱하면 濕이 動한다. 그러나 誤治를 거치지 않았다면 胃陽이 아직 후손되지 않았기에 濕氣의 발생이 오히려 조금씩 생성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만, 汗·下·溫鍼으로 ‘陽亡陰旺’하면 濕邪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土敗水侮’하기에 危證이 차례로 출현하는 것이다.”³⁹⁾고 하여 陰盛한 사람은 濕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병증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③ 太陽壞病이 少陰臟으로 들어가는 進路

『傷寒說意·太陽壞病入少陰臟證』에서 말하기를 “太陽經의 질병이 ‘土負水勝’하면 少陰經의 腎臟으로 들어간다.”⁴⁰⁾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陽壞病入少陰去路』에서 말하기를 “少陰經은 ‘寒水’가 ‘君火’로 化氣하기에 건강한 사람은 水火가 교제하면서 腎水가 溫해지는데, 陰盛한 사람은 水旺火衰하기에 腎氣가 원래 寒한 것이고, 病邪가 太陽經에 있으면 表

34) 김동희 외17명.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0. p.71.

3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0. “惟陽盛亡陰而入陽明之腑, 陰盛亡陽而入太陰之臟. 他經之裏證已作, 而太陽之表邪未罷, 此在太陽, 則爲壞病, 而在諸經, 則爲本病. 故於太陽, 立壞病之門, 而於太陽之外, 又設諸經之篇.”

3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59. “太陽經病, 陽盛亡陰, 則入陽明胃腑.”

3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92~93. “陽明從燥金化氣, 陽旺之人, 表鬱則燥動. 然不經誤治, 津液未耗, 燥氣之作, 何至遽盛? 及其汗、下、溫鍼, 傷津亡液, 燥氣大發, 經腑合邪, 乃成下證.”

3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62. “太陽經病, 陰盛陽亡, 則入太陰脾臟.”

3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99. “太陰以濕土主令, 陰盛之人, 病在太陽, 表鬱則濕動. 然不經誤治, 則胃陽未虧, 濕氣之作, 猶俟漸成. 及夫汗、下、溫鍼, 陽亡陰旺, 濕邪勃興, 土敗水侮, 危證疊出.”

4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68. “太陽經病, 土負水勝, 則入少陰腎臟.”

陽이 外鬱하면서 內寒이 이미 動搖하게 되며, 한 번 汗·下·溫鍼의 逆治를 거치게 되면 陽亡土敗함으로써 寒水를 제약할 수 없기에 水邪가 범람하면서 곧바로 죽게 된다.”⁴¹⁾고 하였다.

④ 太陽壞病이 厥陰臟으로 들어가는 進路

『傷寒說意·太陽壞病入厥陰臟證』에서 말하기를 “太陽經의 질병이 잘못된 發汗과 攻下法으로 亡陽하여 土濕·水寒하면서 ‘木氣’가 條達하지 못하면 病邪가 厥陰經의 肝臟에 이르게 된다.”⁴²⁾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陽壞病入厥陰去路』에서 말하기를 “厥陰經은 ‘風木’으로써 主俞를 삼기에 陰盛한 사람은 病邪가 太陽經에 있으면 ‘木鬱’이 장차 발생한다. 한 번 汗·下·溫鍼의 逆治를 거치면 陽敗水寒함으로써 乙木이 溫氣를 잃게 되고 生氣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厥陰病이 계속해서 일어난다.”⁴³⁾고 하였다.

⑤ 太陽壞病人 結胸과 痞證

結胸과 痞證은 壞病에 다시 壞病이 더해진 것으로 보았는데, 邪氣가 아직 胃腑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下法을 일찍 사용하면 結胸이 되고, 아직 脾臟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誤下하면 痞證이 생성된다고 보았으니, 『傷寒懸解·太陽壞病結胸痞證』에서 말하기를 “太陽病이 太陽經에서 풀리지 않고 陽明의 腑나 太陰의 臟으로 들어가면 寒熱이 偏勝하면서 危機가 잠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太陽의 壞病이다. 그러나 갑자기 失治함으로써 表를 벗어나 裏로 傳變하면서 陽明經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서 承氣湯을 사용하고, 太陰經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서

四逆湯을 사용하면 아직 壞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직 陽明病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攻下法을 일찍 사용하면 結胸이 되고, 장차 太陰病이 형성되려고 하는데 잘못 攻下法을 사용하면 痞證이 된다. …… 이것은 壞病 중에 壞病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張仲景은 이것에 承氣湯과 四逆湯을 변화시킨 陷胸湯과 瀉心湯의 방법을 만들어서 逆證을 順證으로 만회한 것이니 더할 수 없이 至德과 神功이 있는 것이다.”⁴⁴⁾고 하였다.

2. 陽明病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手陽明大腸經은 燥金으로써 主俞하고, 足陽明胃經의 土는 이것을 따라 燥로 변화한다.”⁴⁵⁾고 하였고,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足陽明은 土에 속하고 土의 六氣는 濕인데, 陽明經의 질병으로 陽盛하면 足陽明이 ‘燥金’을 따라 化氣하지만, 陽虛하면 燥金을 따라 化氣하지 않고 太陰을 따라 ‘濕化’한다.”⁴⁶⁾고 하였는데, 陽明經은 燥金으로써 主俞를 삼으니 陽盛한 사람인 경우에는 胃土가 主俞를 따라서 ‘燥’로 변화하지만, 陰盛한 사람의 경우에는 胃土가 ‘濕’한 병증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에 보면 “陽明病, 若能食, 名中風, 不能食, 名中寒.”⁴⁷⁾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中氣와 관련해서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병증이 나타남을 설명하는 것으로, 『傷寒懸解·陽明虛證·提綱』

4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09. “少陰以寒水而化君火, 平人水火交則腎水溫. 陰盛之人, 水旺火衰, 腎氣原寒. 病在太陽, 表陽外鬱, 內寒已動. 一有汗、下、溫鍼之逆, 陽亡土敗, 寒水無制, 水邪泛溢, 死不旋踵.”

4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72. “太陽經病, 汗下亡陽, 土濕水寒, 木氣不達, 則病及厥陰肝臟.”

4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6. “厥陰以風木主令, 陰盛之人, 病在太陽, 木鬱將發. 一有汗、下、溫鍼之逆, 陽敗水寒, 乙木失溫, 生氣不遂, 厥陰之病, 相繼作矣.”

4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8. “太陽之病, 不解於太陽, 而入陽明之腑、太陰之臟, 寒熱之偏勝, 危機伏藏, 是皆太陽之壞病也. 然悠悠失治, 離表傳裏, 俟其入於陽明而用承氣, 入於太陰而用四逆, 猶有救壞之方. 至於未成陽明, 下早而爲結胸, 將成太陰, 誤下而爲痞, …… 是爲壞中之壞, 莫可救挽者也. 仲景於此, 變承氣、四逆而爲陷胸、瀉心法, 挽逆爲順, 至德神功, 無以加矣.”

4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手陽明大腸以燥金主令, 足陽明胃之土從而化燥.”

4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2. “足陽明, 土也, 土之氣爲濕, 陽明經病, 陽盛則足陽明化氣於燥金, 陽虛則不從燥化而從太陰之濕化.”

47) 金東희 외17명.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0. p.319.

에서 말하기를 “陽明보다 陽이 왕성한 곳은 없으니, 陽盛하여 土燥하면 胃降하기에 善納하고, 陽虛하여 土濕하면 胃逆하기에 不食하는 것이기에 ‘不能食’하는 것은 胃土濕하면서 腎水寒하기 때문이다. 土克水하는데 土의 성질은 濕하고 水의 성질은 寒하기에, 陽盛하면 土燥하면서 克水할 수 있지만, 陰盛하면 水寒하기에 侮土하는 것이니, 腎家의 寒이 土의 위치로 옮겨가면 中寒해지기 때문이다. ‘中寒’한 자는 水勝하여 土負하고 胃敗하여 氣逆하므로 ‘不能食’한다.”⁴⁸⁾고 하였다.

또한 『傷寒說意·裏氣解』에서 말하기를 “土는 水火의 中氣이다. 그러므로 火盛하면 燥熱이 戊土(胃)로 전해주고, 水盛하면 寒濕이 己土(脾)로 전해주는데, 이것이 臟寒과 腑熱이 생기는 까닭이다.”⁴⁹⁾고 보았으며, 『四聖心源·六氣解·陽明燥金』에서 말하기를 “太陰經의 성질은 濕하고 陽明經의 성질은 燥한데, 燥濕을 調停하는 것은 中氣에 달려있다. 中氣가 왕성하면 辛金(肺)이 濕土로 化氣하기에 肺가 燥에 손상되지 않고, 戊土(胃)가 燥金으로 化氣하기에 胃가 濕에 손상받지 않는다. 中氣가 쇠약해지면 陰陽이 사귀지 못하면서 燥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게 된다.”⁵⁰⁾고 하여 中氣가 왕성하면 脾胃가 轉運하면서 土가 調和롭고, 中氣가 쇠약하면 脾胃에 濕盛하여 轉運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濕이 왕성하면 소화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土는 火에서 相生하고 ‘火’는 水에 의해 消滅하기 때문에, 土燥하면 克水할 수 있지만, ‘土濕’하면 水氣가 泛濫하여 土를 相侮하면서 火를 消滅한다. ‘水泛土濕’하

면 ‘木氣’가 條達하지 못하면서 生意가 막혀 다만 賊土하기에 生火하면서 培土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土氣가 困敗해지는 까닭이다.”⁵¹⁾고 하였다.

土는 사망의 中氣를 말하는 것으로, 木火가 生長할 수 있는 것은 太陰 脾土의 陽이 上升하기 때문이고, 金水가 收藏할 수 있는 것은 陽明 胃土의 陰이 下降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水가 범람하고 土濕이 생성됨으로 인하여 木氣가 조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土氣의 승강운동이 곤란해짐을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에 보면 “少陰負跌陽者爲順.”⁵²⁾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四聖心源·六氣解·陽明燥金』에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火勝하면 土가 燥해지고 水勝하면 土가 濕해지기에, 燥하면 水를 相克할 수 있지만, 濕하면 도리어 水가 相侮하기 때문이다. 水負하면 生하지만 土負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少陰은 負하는 것이 마땅하고 跌陽이 勝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土가 水를 勝할 수 있으면 中氣가 쾌망하지 않기 때문이니, 中氣가 쾌망하지 않았는데 죽는 경우는 없다.”⁵³⁾고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傷寒說意·裏氣解』에서 말하기를 “대개 水가 편승하면 寒濕의 병이 되고, 火가 편승하면 燥熱의 병이 되는데, 陰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라도 燥는 쉽게 사그라들고 濕은 쉽게 자란다. 왜냐하면 土는 水火의 가운데 거처하고 있기에 水火가 交蒸하면 다만 濕을 생성시키지 燥를 생성시킬 수는 없는 까닭에 濕은 날마다 증가하지만 燥는 날마다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하물며 五行의 이치는 水는 火를 극할 수 있지만 火는 水를 극할 수 없는 까닭으로 火는 항상 지고 水가 항상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寒熱과 燥濕이 進退하면서

4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7. “陽莫盛於陽明, 陽盛而土燥, 則胃降而善納, 陽虛而土濕, 則胃逆而不食. 不能食者, 是胃土濕而腎水寒也. 土克水, 土性濕而水寒, 陽盛則土燥而克水, 陰盛則水寒而侮土. 以腎家之寒, 移於土位, 則病中寒. 中寒者, 水勝而土負, 胃敗而氣逆, 故不能食.”
4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7. “土者, 水火之中氣也, 故火盛則燥熱傳於戊土, 水盛則寒濕傳於己土, 此臟寒腑熱之所由來也.”
5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3. “太陰性濕, 陽明性燥, 燥濕調停, 在乎中氣. 中氣旺, 則辛金化氣於濕土而肺不傷燥, 戊土化氣於燥金而胃不傷濕. 中氣衰, 則陰陽不交而燥濕偏見.”

5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8. “土生於火而火滅於水, 土燥則克水, 土濕則水氣泛濫, 侮土而滅火. 水泛土濕, 木氣不達, 則生意盤塞, 但能賊土, 不能生火以培土, 此土氣所以困敗也.”
52) 김동희 외17명.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0. p.615.
5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3. “緣火勝則土燥, 水勝則土濕, 燥則克水, 濕則反爲水侮. 水負則生, 土負則死, 故少陰宜負, 而跌陽宜勝. 以土能勝水, 則中氣不敗, 未有中氣不敗而人死者.”

消長하는 대체적인 원칙이다.”⁵⁴⁾고 하였다.

足太陰脾은 濕土로써 主습하고 足陽明胃은 燥金을 따라 化氣하기에 ‘濕’이 本氣가 되고 ‘燥’는 化氣가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燥氣는 濕氣의 왕성함에 대적하지 못하므로 ‘陰易盛而陽易衰’한다고 설명하면서 “醫家가 燥濕의 消長을 인식할 수 있으면 仲景학문의 심오한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⁵⁵⁾고 강조하였다.

陽明病은 ‘陽明經病’과 ‘陽明腑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陽明腑病은 다시 ‘實證’과 ‘虛證’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陽明經病에 대하여 『傷寒懸解·陽明經病』에서 말하기를 “陽明病은 太陽病으로부터 傳來된 것으로 아직 ‘胃腑’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부 ‘經病’이다. 經病이라면 發汗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아직 太陽經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麻黃湯이나 桂枝湯을 사용하고, 장차 陽明의 腑로 들어가려고 하면 葛根을 사용한다. 陽明病이면서 일단 ‘嘔吐·下利’의 증상이 보이면, 비록 아직은 裏實하여 攻下가 가능한 증상은 아니지만, 經迫腑鬱하여 이미 胃熱이 장차 생성되는 근본이 되므로 葛根湯을 사용하여 ‘經’과 ‘腑’의 鬱을 함께 풀어주는 것이다.”⁵⁶⁾고 하였고, 다음으로 陽明腑病에 대하여 『傷寒懸解·陽明腑病』에서 말하기를 “陽明病으로 ‘經’으로부터 ‘腑’로 전해지면 腑病이 된 것이니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다. 經證이 아직 그치지 않아서 아직 ‘惡寒’이 나타나면 먼저 發汗시킨 후에 攻下하는 것이 마땅하고, 經證이 이미 풀려서 ‘惡寒’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潮熱’과 ‘汗出’하는 것은 완전히 腑證이니

그 緩急을 헤아려서 攻下法을 사용해야 한다.”⁵⁷⁾고 하였다.

그리고 陽明腑病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實證과 虛證을 구분하여 치료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니, 질병이 三陽經에 있으면 어떤 經에서 감수하였는지 논할 것 없이 內熱이 울체되면서 胃病이 곧 생기기 때문에 承氣湯類를 사용하여 攻下하는 것이 옳지만, 평소에 陽虛한 사람이라면 陽明의 병증이 太陰의 분야로 들어가면서 三陰의 병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는데, 『傷寒說意·陽明經·陽明經虛證提綱』에서 말하기를 “陽明과 太陰은 表裏가 된다. 陽盛하면 陽明이 권한을 맡아서 太陰이 燥로 변화하면서 胃腑로 들어가고, 陰盛하면 太陰이 명령을 맡아서 陽明이 濕으로 변화하면서 脾臟으로 전해진다. 사람의 本氣는 한결같지 않으니 胃實한 사람도 있고 胃虛한 사람도 있다. 胃實하여 腑로 들어가면 燥熱해지니 涼瀉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胃虛하여 臟으로 전해지면 寒濕해지니 溫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大·小承氣湯證은 胃實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고 五苓·四逆湯證은 胃虛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實한 자는 陽明病이라고 부르지만, 虛한 자는 陽明病이라고 命名은 하지만 실제로는 太陰病이다. 사람들은 胃實한 자가 다시 傳變할 곳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胃虛한 자가 三陰經으로 들어가면서 傳變이 無窮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곧 3개의 承氣湯이 胃實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胃虛한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으니 경솔하게 혼용해서는 안 된다.”⁵⁸⁾고 하였다.

또한 『傷寒懸解·陽明虛證』에서 말하기를 “胃家實하면 燥土가 司氣하기에 濕土가 燥로 변화하고,

5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7. “蓋水偏勝則病濕寒, 火偏勝則病燥熱, 而陰陽平者, 則燥易消而濕易長. 緣土居水火之中, 水火交蒸, 但能生濕, 不能生燥, 則濕有日增而燥有日減, 自然之事. 況五行之理, 水能克火, 火不能克水, 故火常敗而水常勝. 此寒熱燥濕進退消長之大凡也.”

5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3. “醫家識燥濕之消長, 則仲景堂奧可階而升矣.”

5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0. “陽明自太陽傳來, 未入於腑, 全是經病. 經病宜汗, 其未離太陽之經, 則用麻, 桂, 其將入陽明之腑, 則加葛根. 陽明一見吐利, 雖未是裏實可下之證, 然而經迫腑鬱, 已是胃熱將成之根, 故用葛根雙解經腑之鬱.”

5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3. “陽明病, 自經傳腑, 腑病宜下. 其經證未罷, 猶見惡寒, 則宜先汗而後下. 經證已解, 惡寒不作, 而潮熱汗出, 全是腑證, 當相其緩急而用下法也.”

5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88. “陽明與太陰爲表裏, 陽盛則陽明司權, 太陰化燥而入胃腑; 陰盛則太陰當令, 陽明化濕而傳脾臟. 人之本氣不一, 有胃實者, 有胃虛者. 胃實入腑, 則燥熱而宜涼瀉; 胃虛傳臟, 則濕寒而宜溫補. 大小承氣之證, 胃之實者, 五苓, 四逆之證, 胃之虛者. 實者是謂陽明病, 虛者名爲陽明, 而實則太陰也. 人知胃實者之無所復傳, 不知胃虛者之動入三陰, 傳變無窮也. 則承氣三湯, 可以生人於胃實, 可以殺人於胃虛, 未可孟浪混施也.”

胃中虛하면 濕土가 主令하기에 燥土가 또한 濕으로 변화한다. 燥하면 陽明證이고 濕하면 太陰證인데, ‘化氣의 燥’는 ‘主令의 濕’에 대적하지 못하기에 雜證에서 濕이 9할을 차지하고 燥는 1할도 안 된다.”⁵⁹⁾고 하였으니, ‘胃家實’한 것은 시종일관 원인이 陽明에 있는 것이니 『傷寒論』에서 말한 “陽明居中主土也, 萬物所歸, 無所復傳.”⁶⁰⁾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承氣湯類의 처방을 사용할 증상인 것이지만, ‘胃中虛’한 것은 질병이 陽明經에는 있지만 陽氣가 쇠약하여 太陰經인 脾臟이 장차 대신해서 그 실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름은 ‘陽明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太陰病’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으로부터 傳變이 無窮하게 일어나기에 四逆湯이나 眞武湯의 증상이 모두 이곳에 잠복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요약하여 말하기를 “張仲景이 말한 ‘陽明之爲病’에는 冷熱과 虛實이 兩立하면서 모두 존재하는 것인데, 提綱에서 ‘胃家實’이라고 말한 것은 陽을 숭상하고 陰을 물리치려는 뜻이 있는 것이니, 文字의 밖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⁶¹⁾고 하였다.

3. 少陽病

『傷寒懸解·六氣司令』에서 말하기를 “手少陽三焦經은 相火로써 主令하고, 足少陽膽經의 木은 이것을 따라 火로 변화한다.”⁶²⁾고 하였으며, 『傷寒懸解·六氣司令』에서 말하기를 “少陽經에 있어서 陽盛하면 火旺하여 腑로 전해지고, 陽虛하면 火衰하여 臟으로

전해지는 것이니, 火勝하는 것만은 아니다.”⁶³⁾고 하였다.

먼저 火旺하여 腑로 전해지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傷寒懸解·提綱』에서 말하기를 “少陽의 兼證이 한 가지가 아닌데, 口苦·咽乾·目眩이 主證이 되는 것은 相火가 上鬱한 까닭이다. 病情이 점차 변하지만 세 가지는 변하지 않고, 病狀은 잘 옮겨다니는데 세 가지는 바뀌지 않는 것은 相火가 아래쪽에 저장되지 못하고 本根을 벗어나서 上浮하기 때문이다.”⁶⁴⁾고 하였으며, 『四聖心源·六氣解·少陽相火』에서 말하기를 “三焦의 火는 足太陽膀胱經을 따라 下行하여 水藏을 溫하게 하며, 膈中으로 나와서 腸胃를 관통한 후 外踝쪽으로 들어간다. …… 少陽의 火가 하강하면, 水가 이 火를 얻은 이후에 通調水道하는 것이므로 三焦가 유독 水道를 주관하는 것이다.”⁶⁵⁾고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水가 잘 저장되는 것은 三焦의 火가 腎藏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 火가 한번씩 빠져나가면서 膀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實하면 下熱하여 閉癢하고 虛하면 下寒하여 遺溺하는 것이다.”⁶⁶⁾고 하였는데, 『靈樞·本輸』에서 말하기를 “三焦者, 入絡膀胱, 約下焦, 實則閉癢, 虛則遺溺.”⁶⁷⁾라고 하였으니, 相火가 아래쪽으로 잘 저장되면 腎臟을 溫暖하게 하고 膀胱을 淸利하게 해서 遺溺나 閉癢에 이르지 않게 되고 水道가 잘 조절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膽과 관련된 병증을 살펴볼 것 같으면

5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6. “胃家實則燥土司氣而濕土以化燥, 胃中虛則濕土主令而燥土亦化濕. 燥則陽明之證也, 濕則太陰之證也. 而化氣之燥, 究不敵主令之濕, 雜證濕居其九, 而燥不得一.”
60) 김동희 외17명.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0. p.310.
6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35. “仲景於陽明之爲病, 冷熱虛實, 兩立而俱存之. 而提綱則曰胃家實也, 其崇陽黜陰之意, 具見於文字之外矣.”
6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手少陽三焦以相火主令, 足少陽膽之木從而化火.”

6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21~22. “少陽, 陽盛則火旺而傳腑, 陽虛則火衰而傳臟, 不皆火勝也.”
6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1. “少陽之兼證不一, 而口苦、咽乾、目眩, 則爲主證, 以相火之上鬱故也. 病情遞變而三者不變, 病狀善移而三者不移. 緣相火不得下秘, 離本根而上浮.”
6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0. “三焦之火, 隨太陽膀胱之經下行, 以溫水藏, 出膈中, 貫腸胃, 而入外踝. …… 少陽之火降, 水得此火, 而後通調, 故三焦獨主水道.”
6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0. “水之所以善藏者, 三焦之火秘於腎藏也. 此火一泄, 陷於膀胱, 實則下熱而閉癢, 虛則下寒而遺溺耳.”
67) 王冰 著.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507.

『四聖心源·六氣解·少陽相火』에서 말하기를 “手少陽經이 병들면 상승하지 못하고, 足少陽經이 병들면 하강하지 못한다. 무릇 上焦의 熱證은 대부분 甲木(膽)이 하강하지 못한 것이니 三焦와는 무관하다. 相火가 본래 下行해야 하는데, 下行하지 못하고 逆升하는 것은 戊土(胃)가 하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戊土(胃)와 辛金(肺)은 함께 下降과 收斂을 주관하는 것이니, 土가 하강하고 金이 수렴하면 相火가 아래 쪽으로 潛藏하는 것인데, 戊土(胃)가 하강하지 못하면 辛金(肺)이 逆行하고 收氣가 다스려지지 못하므로 相火가 上炎하는 것이다.”⁶⁸⁾고 하였다.

少陽病의 傳變과 관련된 내용으로 『四聖心源·六氣解·少陽相火』에서 말하기를 “足少陽經은 비록 三焦를 따라 化火하지만, 원래 甲木(膽)에 속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그 本氣가 겹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相火가 逆行하면 庚金(大腸)을 克하고, 甲木(膽)이 위쪽으로 침범하면 戊土(胃)를 殘賊한다. 手足陽明은 그 氣가 본래 燥하기에 木火가 쌍으로 刑克하면 燥熱의 울체가 발생하므로 少陽病은 대부분 陽明으로 傳變한다.”⁶⁹⁾고 하였고, 또한 『傷寒懸解·少陽本病』에서 말하기를 “少陽病은 甲木(膽)으로써 相火로 化氣하며, 少陽經은 두 개의 陽經과 세 개의 陰經 사이에 있기에 陰陽이 交爭하면서 寒熱往來가 나타나는데, 오래되어 陽勝陰敗하여 다만 發熱하고 惡寒이 없다면 陽明經으로 들어간 것이고, 陰勝陽敗하여 다만 惡寒하고 發熱이 없다면 太陰經으로 들어간 것이다.”⁷⁰⁾고 하여 陰陽의 勝敗에 따라 陽明經이나 太陰經으로 傳變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을 ‘嘔吐’와

‘下利’라는 病症을 통하여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傷寒懸解·少陽本病』에서 말하기를 “太陽과 少陽이 合病하는 것에 ‘嘔吐와 下利’의 조문이 있는데, 嘔吐와 下利는 太陽經과 少陽經의 질병이 아니고 실제로 陽明經의 질병이다. 왜냐하면 甲木(膽)이 鬱滯하면 戊土(胃)를 克하는데, 胃는 倉稟之官으로서 甲木(膽)의 邪氣를 받으면 陽明經이 압박받고 陽明腑가 울체하여 음식물을 수납할 수 없는 까닭으로 上嘔와 下利의 병이 생기는 것이니, 결국 胃病이면 氣逆하는데 逆하면 嘔吐가 되고, 脾病이면 氣陷하는데 陷하면 下利가 되는 것이다. 嘔吐가 많은 것은 少陽이 陽明으로 傳變한 질병이고, 下利가 많은 것은 少陽이 太陰으로 傳變한 질병이다.”⁷¹⁾고 하였다.

少陽病의 치료법은 和解의 방법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傷寒懸解·少陽本病』에서 말하기를 “小柴胡湯은 半表에 있는 邪氣를 淸解하여 陽明經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半裏에 있는 邪氣를 溫補하여 太陰經으로 들어가는 문을 단아서 陰陽이 偏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니, 表邪가 本經에서 해결되기에 ‘和解’라고 부르는 것이다. 少陽經은 頭部에서 足部로 주행하기에 下行하면 相火가 蟄藏하면서 腰膝을 따뜻하게 하지만 上逆하면 相火가 燔騰하면서 胸膈을 焚燒하는데, 相火가 升炎하면서 津血을 쉽게 소모시키기에 少陽病에 유독 陽明病으로 傳變하는 경우가 많다. 大柴胡湯은 少陽經에 陽明의 腑病을 겸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따라서 溫鍼·汗·下法을 써서 亡津耗血하는 방법은 少陽病에서 극력 삼가는 것이니, 陰이 손상됨으로써 陽明經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⁷²⁾고 하였다.

6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40~41. “手少陽病則不升, 足少陽病則不降. 凡上熱之證, 皆甲木之不降, 於三焦無關也. 相火本自下行, 其不下行而逆升者, 由於戊土之不降. 戊土與辛金, 同主降斂, 土降而金斂之, 相火所以潛也. 戊土不降, 辛金逆行, 收斂失政, 故相火上炎.”

6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1. “足少陽雖從三焦化火, 而原屬甲木, 病則兼現其本氣. 相火逆行, 則克庚金, 甲木上侵, 則賊戊土. 手足陽明, 其氣本燥, 木火雙刑, 則燥熱鬱發, 故少陽之病, 多傳陽明.”

7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0. “少陽以甲木而化氣於相火, 經在二陽三陰之間, 陰陽交爭則見寒熱. 久而陽勝陰敗, 但熱而無寒, 則入陽明; 陰勝陽敗, 但寒而無熱, 則入太陰.”

7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0. “然太陽少陽合病, 則有嘔利之條. 嘔利者, 非太陽、少陽之病, 而實陽明之病也. 緣甲木鬱則克戊土, 胃以倉稟之官, 而被甲木之邪, 經迫腑鬱, 不能容納, 故病上嘔而下利. 究之胃病則氣逆, 逆則爲嘔; 脾病則氣陷, 陷則爲利. 嘔多者, 少陽傳陽明之病; 利多者, 少陽傳太陰之病也.”

7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0. “小柴胡淸解半表而杜陽明之路, 溫補半裏而閉太陰之門, 使其陰陽不至偏勝, 表邪解於本經, 是謂和解. 少陽之經, 自頭走足, 下行則相火蟄藏而溫腰膝, 上逆則相火燔騰而焚胸膈. 相火升炎, 津血易耗, 是以少陽之病,

4. 太陰病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足太陰脾經은 濕土로써 主令하고, 手太陰肺經의 金은 이것을 따라 濕으로 변화한다.”⁷³⁾고 하였고,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足太陰은 濕土이니 手太陰의 金은 마땅히 濕을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太陰經의 病으로 陽虛하면 手太陰이 ‘濕土’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太陰이 濕土를 따라 化氣하지 않고 陽明을 따라 ‘燥化’한다.”⁷⁴⁾고 하였다.

太陰經은 濕土로써 主令을 삼으니 陰盛한 사람은 肺金이 主令을 따라 ‘濕’으로 변화하지만, 陽盛한 사람의 경우에는 肺金에 ‘燥’한 병증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陽虛하여 土濕의 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면, 『四聖心源·六氣解·太陰濕土』에서 말하기를 “太陰은 상승을 주관하는데, 己土(脾)가 상승하면 癸水(腎)와 乙木(肝)도 모두 상승한다. 土가 상승하는 것은 脾陽이 發生시키는 것인데, 陽虛하면 土濕하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己土(脾)가 상승하지 못하면 水와 木도 下陷하는 것이다. 火와 金은 上部에 있고 水와 木은 下部에 있으니, 火金은 戊土(胃)에 의해서 하강하고 水木은 己土(脾)에 의해서 상승한다. 戊土(胃)가 하강하지 못하면 火金이 上逆하게 되고, 己土(脾)가 상승하지 못하면 水木이 下陷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모두 ‘濕盛’으로 말미암는다.”⁷⁵⁾고 하였고, 『四聖心源·六氣解·太陰濕土』에서 말하기를 “己土(脾)의 濕은 本氣가 되고 戊土(胃)의 燥는

子氣가 되므로 胃家の 燥는 脾家の 濕에 對敵할 수 없으니 병이 들면 土燥한 자가 적고 土濕한 자가 많은 것이다.”⁷⁶⁾고 하여 太陰病은 本氣인 濕土에 의해서 병증이 많이 발현됨을 알 수 있다.

濕으로 인해서 생기는 病症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四聖心源·六氣解·太陰濕土』에서 말하기를 “上部에 濕이 있으면 火로 변화하여 熱이 되고, 下部에 濕이 있으면 水로 변화하여 寒이 된다. 그러나 上部에도 또한 ‘濕寒’이 있고 下部에도 또한 ‘濕熱’이 있으니, 濕旺氣鬱하여 津液이 運行하지 않는 경우라면 火盛한 자는 熏蒸하여 熱痰이 생기고 火衰한 자는 泛濫하여 寒飲이 생기는데 이것이 ‘濕寒’이 上部에 생기는 경우이고, 濕旺水鬱하여 膀胱이 不利한 경우라면 火衰한 자는 流溢하여 白淫이 되고 火盛한 자는 梗澀하면서 赤濁이 되는데 이것이 ‘濕熱’이 下部에 생기는 경우이다.”⁷⁷⁾고 하였고, 『四聖心源·六氣解·太陰濕土』에서 말하기를 “小便이 黃色인 것은 土色이 下降한 것이고, 小便이 赤色인 것은 木氣가 下陷한 것이다. 왜냐하면 相火가 水에 있으면 一線의 陽根이 있어서 溫升하면 乙木(肝)으로 변화하기에, 木 중에 있는 溫氣는 火를 생성하는 母가 되는데, 상승하면 上達하여 火로 변화하지만 下陷하면 下鬱하여 熱을 생성한다. 木氣가 上達하지 못하면 土位를 침범하여 그 鬱熱이 己土(脾)로 전해지는데, 己土(脾)가 그것을 받으면 이때 膀胱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五行의 성질은 병이 들면 그 相勝하는 곳으로 傳變되는 것이 일반적인 形勢이다. 陰은 쉽게 왕성해지고 陽은 쉽게 쇠약해지는 까닭으로 濕氣는 항상 자라고 燥氣는 항상 소모된다.”⁷⁸⁾고 하였다.

獨傳陽明者多。大柴胡湯，治少陽之經而兼陽明之腑者。以此溫鍼、汗、下，亡津耗血之法，俱少陽之所切忌，恐其陰傷而入陽明也。”

7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足太陰脾以濕土主令, 手太陰肺之金從而化濕.”
7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2. “足太陰, 濕土也, 手太陰之金, 應從濕化, 而太陰經病, 陽虛則手太陰化氣於濕土, 陽盛則手太陰不從濕化而從陽明之燥化.”
7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2. “太陰主升, 己土升則癸水與乙木皆升. 土之所以升者, 脾陽之發生也. 陽虛則土濕而不升, 己土不升, 則水木陷矣. 火金在上, 水木在下, 火金降於戊土, 水木升於己土. 戊土不降, 則火金上逆; 己土不升, 則水木下陷, 其原總由於濕盛也.”

7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2. “己土之濕爲本氣, 戊土之燥爲子氣, 故胃家之燥不敵脾家之濕, 病則土燥者少, 而土濕者多也.”
7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2. “上濕則化火而爲熱, 下濕則化水而爲寒. 然上亦有濕寒, 下亦有濕熱. 濕旺氣鬱, 津液不行, 火盛者, 熏蒸而生熱痰; 火衰者, 泛濫而生寒飲, 此濕寒之在上者. 濕旺水鬱, 膀胱不利, 火衰者, 流溢而爲白淫; 火盛者, 梗澀而爲赤濁, 此濕熱之在下者.”
7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2. “便黃者, 土色之下傳; 便赤者, 木氣之下陷. 緣相火在水, 一線陽根, 溫升而化乙木, 木中溫氣, 生火之母, 升則上達而化火, 陷則下鬱而生熱. 木氣不達, 侵

특히 太陰病에서도 中氣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니, 『傷寒懸解·太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太陰經은 濕土로써 主승하므로 太陰 脾臟이 병 들지 않으면 낫겠지만 병들면 ‘濕’으로 된다. 土가 克水할 수 있는 것은 ‘燥’하기 때문인데, ‘濕’하면 도리어 水의 相侮를 받게 된다. 少陰 寒水의 氣가 土에 傳해지면 脾臟에 寒이 생기는데, ‘濕’은 太陰의 主氣이고 ‘寒’은 少陰의 客氣이다. 太陰病으로 ‘寒濕’한 것은 총괄하자면 陽明의 虛로 인한 것이다. 脾는 濕土이고 胃는 燥土인데, 陽明의 陽이 왕성하면 濕이 燥에게 지면서 熱로 변화하고, 太陰의 陰이 왕성하면 燥가 濕에 지면서 寒이 생긴다. 陰陽·虛實의 權衡은 中氣에 있으니, 中氣가 왕성하면 脾家實하면서 太陰病이 陽明病으로 從化할 것이고, 中氣가 쇠약하면 胃氣逆하면서 陽明病이 太陰病으로 從化할 것이다.”⁷⁹⁾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陰臟病·提綱』에서 말하기를 “太陰 濕土는 氣가 본래 上行하는 것인데, 『素問』에서 ‘脾氣散精, 上歸於肺.’라고 한 것은 臟氣가 上行함을 말한다. 足の 三陰經은 足部로부터 胸部로 향하기에 經氣가 上行하는 것인데, 병이 들면 濕盛氣滯하기에 陷하여 상승하지 못하게 되고, 脾陷하면 胃逆하면서 하강하지 못하게 된다. 대개 燥는 陽이 되고 濕은 陰이 되는데, 陽은 天에 근본하므로 上部와 친하고 陰은 地에 근본하기에 下部와 친하다. 그러므로 陽明 燥土가 병들면 氣逆하는 것이고, 太陰 濕土가 병들면 氣陷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이다.”⁸⁰⁾ 하였다.

또한 『傷寒懸解·太陰臟病·提綱』에서 말하기를 “太陰病의 提綱으로 ‘腹滿而吐, 食不下’하는 것은 太陰의 수고로움이 陽明에 미치면서 氣逆하는 것이다. ‘自利益甚, 時腹痛’하는 것은 太陰의 손상이 厥陰에 미치면서 氣陷한 것이다. 脾陷하여 상승하지 못하고 胃逆하여 하강하지 못하면, 질병이 上下로 나타나는 것이니 근본 원인이 中宮에 있는 것으로, 中宮의 樞軸이 운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攻下法을 사용하게 되면 樞軸이 敗折되면서 陷한 병증은 더욱 陷下하게 되고 逆한 병증은 더욱 逆上하게 된다.”⁸¹⁾고 하였고, 『傷寒懸解·太陰臟病』에서 말하기를 “대개 脾陽이 虧虛하면 水가 相侮하면서 木이 相賊하고, 少陰과 厥陰의 陰邪가 勃起하여 內應하게 되는데, 이때 太陰經으로 가지 않고 少陰經과 厥陰經으로 傳變하게 된다.”⁸²⁾고 하였는데, 少陰과 厥陰의 死病은 대부분 脾陽의 무너짐으로 말미암고, 少陰과 厥陰의 生證은 대부분 脾陽의 회복됨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四聖心源·六氣解·太陰濕土』에서 말하기를 “陰盛하면 병 들고 陽絶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서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後世의 어리석은 醫師들은 ‘補陰함으로써 濕을 조장’하고 ‘瀉火함으로써 陽氣를 攻伐’하여 환자들이 滋潤함으로 인해서 일찍 죽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이것이古今의 큰 禍亂인 것이다.”⁸³⁾고 하여 당시의 醫家들의 滋陰降火에 치중하고 陽氣를 攻伐하는 잘못된 치료법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逼土位, 以其鬱熱傳於己土, 己土受之, 於是浸淫於膀胱. 五行之性, 病則傳其所勝, 其勢然也. 陰易盛而陽易衰, 故濕氣恒長而燥氣恒消.”

7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92. “太陰以濕土主令, 故太陰脾臟不病則已, 病則是濕. 土之所以克水者, 以其燥也, 濕則反被水侮. 少陰寒水之氣傳之於土, 是以其臟有寒. 濕者, 太陰之主氣; 寒者, 少陰之客氣也. 而太陰之病寒濕者, 總因陽明之虛. 脾爲濕土, 胃爲燥土. 陽明之陽盛, 則濕爲燥奪而化熱; 太陰之陰盛, 則燥爲濕奪而生寒. 而陰陽虛實之權, 在乎中氣. 中氣旺則脾家實, 太陰從化於陽明; 中氣衰則胃氣逆, 陽明從化於太陰.”

8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92~193. “太陰濕土, 氣本上行, 『素問』: ‘脾氣散精, 上歸於肺.’, 是臟氣之上行也. 足之三陰, 自足走胸, 是經氣之上行也. 病則濕盛氣滯, 陷而不升, 脾陷

則胃逆而不降矣. 蓋燥爲陽而濕爲陰, 陽本於天而親上, 陰本乎地而親下, 故陽明燥土, 病則氣逆, 太陰濕土, 病則氣陷, 自然之性也.”

8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92~193. “太陰提綱, 腹滿而吐, 食不下者, 太陰之累及陽明而氣逆也. 自利益甚, 時腹痛者, 太陰之傷於厥陰而氣陷也. 脾陷而不升, 胃逆而不降, 病見於上下, 而根在乎中宮, 以中宮樞軸之不運也. 若下之, 樞軸敗折, 陷者益陷而逆者益逆.”

8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92. “蓋脾陽虧虛, 則水侮而木賊, 少厥之陰邪, 勃起而內應, 於是未去太陰, 已傳少厥.”

8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2. “陰盛則病, 陽絶則死, 理之至淺, 未嘗難知. 後世庸愚, 補陰助濕, 瀉火伐陽, 病家無不夭枉於滋潤, 此古今之大禍也.”

5. 少陰病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手少陰心經은 君火로써 主令하고, 足少陰腎經의 水는 이것을 따라 火로 변화한다.”⁸⁴⁾고 하였고,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足少陰은 水에 속하고 水의 六氣는 寒인데, 少陰經의 질병으로 陽盛하면 足少陰이 ‘君火’를 따라 化氣하지만, 陽虛하면 君火를 따라 化氣하지 않고 太陽을 따라 ‘寒化’한다.”⁸⁵⁾고 하였다.

少陰病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傷寒懸解·少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少陰經은 癸水(腎)가 君火로 化氣하는데, 病이 없을 때에는 丁火(心)가 下降하여 水와 交濟하고 癸水(腎)가 上升하여 火와 交濟하여, 水와 火가 互根하고 陰陽이 交濟하여 二氣가 합하여 一氣가 되는 까닭으로 火不上熱하고 水不下寒하게 되는데, 일단 病이 들면 丁火(心)가 上炎하여 熱이 되고 癸水(腎)가 下潤하여 寒이 되면서 마침내 冰炭과 같이 서로 交濟되지 못하는 것이다.”⁸⁶⁾고 하였으니, 일반적으로 水와 火는 본래 交濟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交濟하면 一氣가 되지만, 交濟하지 못하면 흩어져 나누어 붕괴되면서 얼음과 숯처럼 서로 交濟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四聖心源·六氣解·少陰君火』에서 말하기를 “少陰은 君火로써 主令하는데, 手少陰心經은 火이고 足少陰腎經은 水이다. 水와 火는 異氣인데 君火로써 거느리는 것은 火는 上部에 위치하지만 下部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坎卦 中間에 있는 陽爻는 火의 뿌리가 된다. 坎卦 중에 있는 陽爻가 상승하여 위쪽에 있는 離卦와 사귀면 火로 변화하는데, 火는 水에서 상승하는 까닭으로 癸水(腎)가 丁火(心)로 化

氣하는 것이다. 水가 변화하여 火가 되는 것은 寒이 熱을 따라서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少陰의 氣는 水火가 함께 거느리지만 홀로 ‘君火’로써 명명한 것이다.”⁸⁷⁾고 하였다.

少陰病의 병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四聖心源·六氣解·本氣衰旺』에서 말하기를 “手少陰經은 君火로써 司化하고, 足少陰經의 水는 從令하여 化熱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足少陰經이 病이 들면 ‘寒’해지는 것은 從化하는 것이 그 本氣를 드러내는 것으로 水의 성질이 원래 寒하기 때문이고, 手少陰經이 病이 들어 ‘寒’해지는 것은 司化하는 것이 從化하는 것의 氣를 드러내는 것으로 君火가 원래 水로부터 변화하기 때문이다.”⁸⁸⁾고 하였으며,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病이 들면 太陽經은 ‘寒’의 증상을 나타내고, 陽明經은 ‘燥’의 증상을 나타내며, 少陽經은 ‘火’의 증상을 나타내고, 太陰經은 ‘濕’의 증상을 나타내고, 厥陰經은 ‘風’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오직 少陰經은 ‘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寒’의 증상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火勝하면 熱하고 水勝하면 寒한 것인데, 病이 들면 水能勝火하지만 火不勝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壬水(膀胱)를 따라 寒化하는 것이지 丁火(心)를 따라 熱化하지는 않는다.”⁸⁹⁾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重陽賤陰’하였던 학술 사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四聖心源·六氣解·少陰君火』에서 말하기를 “陽盛하면 手少陰經이 上部에서 主令하기에 癸水도 또한 따뜻한 샘물

8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手少陰心以君火主令, 足少陰腎之水從而化火.”

8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2. “足少陰, 水也, 水之氣爲寒, 少陰經病, 陽盛則足少陰化氣於君火, 陽虛則不從化而從太陽之寒化.”

8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00. “少陰以癸水而化氣於君火, 無病之時, 丁火下降而交水, 癸水上升而交火, 水火互根, 陰陽交濟, 二氣合爲一氣, 故火不上熱而水不下寒. 及其一病, 丁火上炎而爲熱, 癸水下潤而爲寒, 遂成冰炭矣.”

8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1. “少陰以君火主令, 手少陰心, 火也, 足少陰腎, 水也. 水火異氣, 而以君火統之, 緣火位於上而生於下. 坎中之陽, 火之根也. 坎陽升則上交離位而化火, 火升於水, 是以癸水化氣於丁火. 水化而爲火, 則寒從熱化, 故少陰之氣, 水火並統, 而獨以君火名也.”

8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9. “手少陰以君火司化, 足少陰之水從令而化熱者, 常也. 而足少陰之病寒, 是從化者自見其本氣, 以水性原寒. 手少陰之病寒, 是司化者而見從化之氣, 以君火原從水化也.”

8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21~22. “病則太陽是寒, 陽明是燥, 少陽是火, 太陰是濕, 厥陰是風, 而惟少陰則不從熱化而從寒化. 以火勝則熱, 水勝則寒, 病則水能勝火而火不勝水, 故從壬水而化寒, 不從丁火而化熱也.”

이 되지만, 陰盛하면 足少陰經이 下部에서 司氣하기에 丁火가 마침내 차가운 잿더미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丁火(心)가 비록 氣化를 담당하고 있지만, 勝制하는 권한은 마침내 癸水(腎)에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土를 생성함으로써 癸水を 진압하는 것이다. 다만 土가 비록 水를 克하지만 百病이 생기는 원인은 '土濕'을 따르는 것이 많으니, 濕하면 水를 克하지 못하고 도리어 水의 侮를 당하게 된다. 土가 水를 克하는 것은 오직 『傷寒論』의 陽明病 承氣湯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그 나머지는 寒水가 侮土하는 것이 9할을 넘어서나. 土潰하면 火敗하는 까닭으로 少陰經의 병증은 반드시 寒水가 泛濫하면서 火와 土가 모두 승부에서 지는 것이 일반적인 形勢이다.”⁹⁰⁾고 하였으며, 『傷寒懸解·一氣獨勝』에서 말하기를 “六氣가 和平하면 一氣가 獨勝하지 못하는 데, 諸氣가 패배하면 一氣가 獨勝하는 까닭으로 一腑一臟의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 陽은 ‘陽明’보다 왕성한 것이 없고, 陰은 ‘少陰’보다 왕성한 것이 없다. ‘陽明之爲病’이라고 말한 것은 少陰의 水가 승부에서 지면서 趺陽의 土가 왕성한 것이고, ‘少陰之爲病’이라고 말한 것은 趺陽의 土가 승부에서 지면서 少陰의 水가 이기는 것이다. ‘土勝水負’한 것은 順證이고, ‘水勝土負’한 것은 逆證이다. 陽明의 腑病은 土勝한 증상이고, 三陰의 臟病은 水勝한 증상이다. 陰陽을 끌고루 다스림에 있어서 ‘水土를 補瀉’하는 오묘함에 대해서 仲景이 이미 세상에 없기에 後世의 庸工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⁹¹⁾고

하였다.

따라서 치료법에 있어서는 腎家の 寒을 돌보면서 반드시 中氣를 도와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四聖心源·六氣解·少陰君火』에서 말하기를 “ ‘上熱’하는 증상은 相火가 上逆하는 것이다. 火를 상징하는 離卦의 중간에 陰爻가 있는 것이 癸水(腎)에 뿌리하는 것인데, 相火가 上逆하면 재앙이 宮城에 미치면서 心液이 消亡되어 熱이 생기는 것이다. 무릇 少陰病의 熱이 相火에 영향받는 것은 실제로는 心家の 잘못이 아니니, 그 上熱하는 것은 반드시 下寒이 있기 때문에 水火가 분리되어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心家の 熱을 보면 마땅히 腎家の 寒을 돌보아야 한다.”⁹²⁾고 하였으며, 『傷寒懸解·少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少陰病에서 다만 下寒만 보이고 上熱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水는 火를 이길 수 있지만 火는 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니, 병이 들었을 때 水勝하면 火負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다. 水가 火를 相克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土’에 달려 있으니, 水가 비록 火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中州의 土가 제방을 쌓아서 陰邪를 막으면 寒水가 범람하지 못하면서 君火가 조금씩 소멸함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 ‘土旺’하면 水邪가 일어나지 못하면서 少陰病이 생기지 않는다. 中氣가 한 번 무너지면 堤防이 붕괴되면서 寒水を 억제하지 못하여 君火를 침해하고 능멸하게 되는 것이니, 上部에서는 잿더미만 날리면서 제대로 燃燒하지 못하고 下部에서는 단단한 얼음처럼 되어 解凍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四逆湯이나 眞武湯과 같은 방법이

9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1. “陽盛則手少陰主令於上, 而癸水亦成溫泉; 陰盛則足少陰司氣於下, 而丁火遂爲寒灰. 以丁火雖司氣化, 而制勝之權, 終在癸水, 所恃者, 生土以鎮之. 但土雖克水, 而百病之作, 率由土濕. 濕則不能克水而反被水侮. 土能克水者, 惟傷寒陽明承氣一證, 其餘則寒水侮土者, 十九不止. 土潰則火敗, 故少陰一病, 必寒水泛濫而火土俱負, 其勢然也.”

9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2. “六氣和平, 則一氣不至獨勝; 諸氣敗北, 一氣獨勝, 故見一腑一臟之病. 陽莫盛於陽明, 陰莫盛於少陰. 曰陽明之爲病, 是少陰之水負而趺陽土盛者也; 曰少陰之爲病, 是趺陽土負而少陰水勝者也. 土勝水負則爲順, 水勝土負則爲逆. 陽明腑病, 是土勝之證; 三陰臟病, 是水勝之證. 變理陰陽, 補瀉水土之奧, 仲景既沒, 後世庸工, 一絲不解也.”

9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1. “至於上熱者, 此相火之逆也. 火中有液, 癸水之根, 相火上逆, 災及宮城, 心液消亡, 是以熱作. 凡少陰病熱, 乃受累於相火, 實非心家之過. 而方其上熱, 必有下寒, 以水火分離而不交也. 見心家之熱, 當顧及腎家之寒.”

9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00. “少陰病, 但見其下寒而不顯其上熱者, 以水能勝火而火不勝水, 病則水勝而火負, 一定之理也.”

조하였다.

6. 厥陰病

『傷寒懸解·六氣司命』에서 말하기를 “足厥陰肝經은 風木으로써 主令하고, 手厥陰心包經의 火는 이것을 따라 風으로 변화한다.”⁹⁴⁾고 하였고,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足厥陰經은 風木이니 手厥陰經의 火는 마땅히 風을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厥陰經의 질병으로 陽虛하면 手厥陰經이 ‘風木’으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厥陰經이 風木을 따라 化氣하지 않고 少陽을 따라 ‘暑化’한다.”⁹⁵⁾고 하였다.

厥陰病의 특징에 대해서 『四聖心源·六氣解·厥陰風木』에서 말하기를 “手厥陰經은 火인데, 木氣가 잘 통창하면 厥陰心主가 從令하여 風으로 변화하지만, 木氣가 抑鬱되면 厥陰心主가 그 本氣를 저절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厥陰病이 되면 아래쪽에서는 ‘寒濕’이 俱盛하고, 위쪽에서는 ‘風熱’이 兼作하는 것이니, 그 氣가 그러하기 때문이다.”⁹⁶⁾고 하였으니, 木鬱로 인한 병증에 대해서 『四聖心源·六氣解·厥陰風木』에서 말하기를 “무릇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木氣의 鬱滯로 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肝木은 生氣를 주관하고, 사람의 生氣가 부족한 것이 8~9할인데 木氣가 抑鬱해서 生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다. 木은 水와 火의 中氣로써 병이 들면 土와 木이 鬱迫하고 水火不交하기 때문에 外燥하면서도 內濕하고 下寒하면서

上熱하는 것이다.”⁹⁷⁾고 하였다.

木鬱과 관련된 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水寒土濕’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았는데, 『四聖心源·六氣解·厥陰風木』에서 말하기를 “대개 厥陰肝木은 腎水에서 生하면서 脾土에서 長하기에, 水土가 溫和하면 肝木이 發榮하여 木靜하면서 風恬하지만, ‘水寒土濕’하여 木氣를 생장하지 못하면 ‘木鬱’하면서 風生하는 것이다. 木은 發達하는 성질이 있는데 己土(脾)가 濕陷하면 乙木(肝)의 發達하는 氣를 막아서 生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鬱怒하여 脾土를 克하거나 風動하면서 疏泄이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무릇 腹痛下利와 亡汗失血의 증상은 대부분 風木의 疏泄과 관련된 것이다. 肝藏血하기에 영화로움은 顔色에 나타나고 肝主筋하기에 영화로움은 爪甲에 나타나는데, 風動하면 血이 耗損되면서 顔色이 마르고 爪甲이 약해지면서 筋急한 것이니, 무릇 皆黑唇靑하고 爪斷筋縮하는 증상은 대부분 風木이 枯燥한 것이다.”⁹⁸⁾고 하였다.

한편 厥陰病에 보면 嘔吐·下利와 관련된 조문이 많이 보이는데, 『傷寒懸解·厥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利’하는 것이 ‘吐’하는 것보다 많은 것은 五行의 相克이 각각 그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膽胃는 모두 陽이고 陽은 下降을 주관하는데, ‘膽木이 胃土를 克’하면 氣逆하여 하강하지 못하므로 少陽病과 陽明病은 ‘嘔多’하면서 ‘利少’한 것이고, 肝脾는 모두 陰이고 陰은 上升을 주관하는데, ‘肝木이 脾土를 克’하면, 氣陷하여 상승하지 못하므로 厥陰病과 太陰病은 ‘嘔少’하면서 ‘利多’한 것이다. 土는 受盛을 주관하고 木은 疏泄을 주관하기에, 胃는 본래 嘔하지 않는 것

水之所以不勝火者, 全賴乎土, 水雖有勝火之權, 而中州之土, 堤其陰邪, 則寒水不至泛濫, 而君火不至漸亡. 蓋土旺則水邪不作, 少陰不病也. 中氣一敗, 堤防崩潰, 寒水無制, 侵凌君火, 上之則飛灰不燃, 下之則堅冰不解. 雖有四逆、眞武之法, 第恐陽神已去, 陰魄徒存, 挽之末路, 桑榆難追. 故少陰之死證, 總因土氣之敗也.”

9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1. “足厥陰肝以風木主令, 手厥陰心包之火從而化風.”

9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42. “足厥陰, 風木也, 手厥陰之火, 應從風化, 而厥陰經病, 陽虛則手厥陰化氣於風木, 陽盛則手厥陰不從風化而從少陽之暑化.”

9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0. “手厥陰, 火也. 木氣暢遂, 則厥陰心主從令而化風; 木氣抑鬱, 則厥陰心主自現其本氣. 是以厥陰之病, 下之則寒濕俱盛, 上之則風熱兼作, 其氣然也.”

9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0. “凡病之起, 無不因於木氣之鬱. 以肝木主生, 而人之生氣不足者, 十常八九, 木氣抑鬱而不生, 是以病也. 木爲水火之中氣, 病則土木鬱迫, 水火不交, 外燥而內濕, 下寒而上熱.”

9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0. “蓋厥陰肝木, 生於腎水而長於脾土. 水土溫和, 則肝木發榮, 木靜而風恬; 水寒土濕, 不能生長木氣, 則木鬱而風生. 木以發達爲性, 己土濕陷, 抑遏乙木發達之氣, 生意不遂, 故鬱怒而克脾土, 風動而生疏泄. 凡腹痛下利, 亡汗失血之證, 皆風木之疏泄也. 肝藏血而華色, 主筋而榮爪, 風動則血耗而色枯, 爪脆而筋急. 凡皆黑唇靑, 爪斷筋縮之證, 皆風木之枯燥也.”

인데 膽木이 克하면 ‘上嘔’하는 것이고, 脾는 본래 下利하지 않는 것인데 肝木이 瀉하면 ‘下利’하는 것이다. ‘嘔’와 ‘利’는 비록 脾胃의 질병이지만 실제로는 肝과 膽의 邪氣인 것이다.”⁹⁹⁾고 하였다.

특히 厥陰病의 豫後를 살피에 있어서도 少陰病과 마찬가지로 中氣의 存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傷寒懸解·厥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厥陰經은 ‘風木’으로써 主승하는데, 癸水(腎)에서 胚胎되어 丁火(心)를 품고 있으니, 子氣(火)와 협조하면 ‘上熱’하는 것이고, 母氣(水)를 잡고있으면 ‘下寒’하는 것이다. 子氣(火)가 왕성하면 ‘熱’하고 母氣(水)가 왕성하면 ‘厥’하는 것이니 ‘熱’한 것은 삶과 관련되고 ‘厥’은 죽음의 문턱이 된다. ‘熱’과 ‘厥’의 勝負가 왕래하는 사이에 中氣의 存亡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 ‘熱’이 勝하면 火旺하여 土가 生하고 ‘厥’이 勝하면 水旺하여 土가 死하는 것이어서 삶과 죽음의 구분은 이것에서 정해진다.”¹⁰⁰⁾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厥陰을 살펴보면 陰極의 臟이니 陰極하면 陽生하는 것으로, 母氣(水)의 ‘寒’을 끼고서 土를 賊하는 것이 厥陰이고, 子氣(火)의 ‘熱’을 품어서 土를 生하는 것도 또한 厥陰이다. 水와 木이 침범하여 능멸하면 土가 붕괴되면서 陽氣가 敗하게 되는데, 홀연히 한 가닥의 螢光이 있어 中氣를 溫存하고, 中氣가 일단 깨어나서 따뜻하게 長養하면, 점점 陽이 조화롭게 사방으로 펼쳐지고 上下로 오르내리면서 手足에 溫氣가 生하고 嘔利가 모두 그치는 것이다.”¹⁰¹⁾고 하였

다.

결국 少陰病과 厥陰病에 있어서 둘 다 趺陽脈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傷寒懸解·厥陰臟病』에서 말하기를 “土가 받는 것은 火인데 ‘土虛’하면 君火가 水를 勝할 수 없고, 土가 克하는 것이 水이지만 ‘火衰’하면 寒水가 마침내 侮土하는 것이다. 少陰病은 趺陽脈이 勝勢를 잡고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寒水가 승부에서 지지만, 厥陰病은 趺陽脈이 敗地에 있어서 水와 木이 邪氣를 합하여 약한 土를 능멸하는 것이니 어찌 승부에서 지지 않을 까답이 있겠는가? 따라서 ‘厥逆吐利’의 조문을 少陰病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한 것은 모두 趺陽脈이 敗했기 때문이다.”¹⁰²⁾고 하였다.

III. 考察

黃元御는 『傷寒論』의 六經病을 해석함에 있어서 ‘六氣’로 총괄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少陰經·少陽經·陽明經은 手經이 ‘司氣’하고 足經이 ‘從化’하며, 厥陰經·太陰經·太陽經은 足經이 ‘司氣’하고 手經이 ‘從化’한다.”는 것이며,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裏氣의 衰旺’에 따라 ‘司化’할 것인지 ‘從化’할 것인지가 결정됨을 강조하고 있다.

六經의 氣化學說과 관련된 黃元御의 이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陽病과 관련해서 “陽虛하면 手太陽이 ‘寒水’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太陽이 寒水を 따라 化氣하지 않고 少陰을 따라 ‘熱化’한다.”고 하였는데, 인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陽氣’의 盛虛에 따라서 ‘寒’과 ‘熱’의 병증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太陽病은 주로 ‘營衛’를 통하여 전신에 氣血을 보

9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20. “其利多於吐者, 緣五行之相克, 各從其類. 膽胃皆陽也, 陽主下降, 以膽木而克胃土, 氣逆而不降, 故少陽、陽明之病, 則嘔多而利少; 肝脾皆陰也, 陰主上升, 以肝木而克脾土, 氣陷而不升, 故厥陰、太陰之病, 則嘔少而利多. 土主受盛, 而木主疏泄, 胃本不嘔, 有膽木以克之, 則上嘔; 脾本不利, 有肝木以瀉之, 則下利. ‘嘔·利’者, 雖脾胃之病, 而實肝膽之邪也.”

10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20. “厥陰以風木主令, 胎於癸水, 而孕丁火, 協子氣則上熱, 乘母氣則下寒. 子勝則熱, 母勝則厥, 熱爲人關, 厥爲鬼門. 勝負往來之間, 中氣存亡, 於此攸判, 熱勝則火旺而土生, 厥勝則水旺而土死, 人鬼之分, 由是定矣.”

10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220~221. “顧厥陰陰極之臟, 陰極則陽生, 挾母氣之寒以賊土者, 厥陰也, 孕子氣之熱以生土者,

亦厥陰也. 水木侵凌, 土崩陽敗, 忽而一線螢光, 溫存中氣, 中氣一蘇, 煦濡長養, 漸而陽和四布, 上下升沈, 手足溫生, 嘔利皆止.”

10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20. “然土之所恃者, 火也, 土虛則君火不能勝水; 土之所克者, 水也, 火衰而寒水遂得侮土. 少陰之病, 趺陽操其勝勢, 而多負於寒水; 厥陰之病, 趺陽處其敗地, 而水木合邪, 凌侮弱土, 焉有不負之理乎? 是以厥逆吐利之條, 較之少陰更甚, 是皆趺陽之敗也.”

내주는 것과 관련된 병증으로 보았는데, 올바른 치료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陽衰하면 太陰經으로 들어가면서 ‘寒’이 되고, 陰衰하면 陽明經으로 들어가면서 ‘熱’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太陽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表裏 관계에 있는 少陰病과의 연관성 속에서 ‘寒熱’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少陰의 臟은 최교로 쉽게 ‘寒’으로 병들고, 太陽의 腑는 최교로 쉽게 ‘熱’로 병든다.”고 보았다.

둘째, 陽明病과 관련해서 “陽盛하면 足陽明이 ‘燥金’을 따라 化氣하지만, 陽虛하면 燥金을 따라 化氣하지 않고 太陰을 따라 ‘濕化’한다.”고 하였는데, 인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陽氣’의 盛虛에 따라 ‘燥’와 ‘濕’의 병증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陽明病에서는 ‘中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반드시 表裏 관계에 있는 太陰病과의 연관성 속에서 ‘燥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燥濕을 調停하는 것은 中氣에 달려있기 때문에 中氣가 왕성하면 肺가 燥에 손상받지 않고, 胃가 濕에 손상받지 않지만, 中氣가 쇠약해지면 陰陽이 사귀지 못하면서 燥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것은 陽明病에는 ‘實證’뿐만 아니라 ‘虛證’도 함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 “胃家實하면 燥土가 司氣하기에 濕土가 燥로 변화하고, 胃中虛하면 濕土가 主令하기에 燥土가 또한 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本氣는 한결 같지 않으니 胃實한 사람도 있고 胃虛한 사람도 있다. 胃實하여 腑로 들어가면 燥熱해지니 涼瀉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胃虛하여 臟으로 전해지면 寒濕해지니 溫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셋째, 少陽病과 관련해서 “陽盛하면 火旺하여 腑로 전해지고, 陽虛하면 火衰하여 臟으로 전해진다.”고 하였는데, 인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陽氣’의 盛虛에 따라서 ‘相火’와 ‘風木’의 병증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少陽病은 주로 上下의 升降 운동과 관련된 병증

이 많이 발견되는데, “手少陽經이 병들면 상승하지 못하고, 足少陽經이 병들면 하강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上焦의 熱證은 대부분 甲木(膽)이 하강하지 못한 것이고, 相火가 下行하지 못하고 逆升하는 것은 戊土(胃)가 하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相火가 逆行하면 庚金(大腸)을 克하고, 甲木(膽)이 上逆하면 戊土(胃)를 殘賊한다.”고 하였다.

넷째, 太陰病과 관련해서 “陽虛하면 手太陰이 ‘濕土’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太陰이 濕土를 따라 化氣하지 않고 陽明을 따라 ‘燥化’한다.”고 하였는데, 인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陽氣’의 盛虛에 따라서 ‘燥’와 ‘濕’의 병증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다만 脾의 濕은 本氣가 되고 胃의 燥는 子氣에 해당되므로 “胃家の 燥는 脾家の 濕에 대적할 수 없으니 병이 들면 土燥한 자가 적고 土濕한 자가 많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戊土(胃)가 하강하지 못하면 火金이 上逆하게 되고, 己土(脾)가 상승하지 못하면 水木이 下陷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모두 濕盛으로 말미암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太陰病에서는 ‘脾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脾陽이 虧虛하면 水가 相侮하면서 木이 相賊하고, 少陰과 厥陰의 陰邪가 勃起하여 內應하게 되는데, 이때 太陰經으로 가지 않고 少陰經과 厥陰經으로 傳變하게 된다.”고 하면서, “少陰과 厥陰의 死病은 대부분 脾陽의 무너짐으로 말미암고, 少陰과 厥陰의 生證은 대부분 脾陽의 회복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少陰病과 관련해서 “陽盛하면 足少陰이 ‘君火’를 따라 化氣하지만, 陽虛하면 君火를 따라 化氣하지 않고 太陽을 따라 ‘寒化’한다.”고 하였는데, 다만 少陰病은 특징적으로 ‘熱’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寒’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少陰經이 병이 들면 “丁火(心)가 비록 氣化를 담당하고 있지만, 勝制하는 권한은 마침내 癸水(腎)에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土를 생성함으로써 癸水를 진압하는 것인데, 土가 비록 水를 克하지만 百病이 생기는 원인은 ‘土濕’을 따르는

것이 많으니, 濕하면 水를 克하지 못하고 도리어 水의 侮를 당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少陰經의 병증은 반드시 寒水가 泛濫하면서 火와 土가 모두 승부에서 지는 것이 일반적인 形勢이다.”고 하였다.

여섯째, 厥陰病과 관련해서 “陽虛하면 手厥陰經이 ‘風木’으로 化氣하지만, 陽盛하면 手厥陰經이 風木을 따라 化氣하지 않고 少陽을 따라 ‘暑化’한다.”고 하였는데, 厥陰病은 주로 ‘水寒土濕’하여 木氣를 생장시키지 못하면 ‘木鬱’로 인하여 “아래쪽에서는 ‘寒濕’이 俱盛하고, 위쪽에서는 ‘風熱’이 兼作한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되는 이유는 “木은 水와 火의 中氣로써 병이 들면 土와 木이 鬱迫하고 水火不交하기 때문에 外燥하면서도 內濕하고 下寒하면서 上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厥陰病의 豫後를 살피에 있어 ‘中氣의 存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厥陰病은 ‘熱’과 ‘厥’의 勝負가 왕래하는 사이에 中氣의 存亡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니, ‘熱’이 勝하면 火旺하여 土가 生하고, ‘厥’이 勝하면 水旺하여 土가 死하는 것이어서 삶과 죽음의 구분은 이것에서 정해진다.”고 하였다.

黃元御는 이상과 같이 六經病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향에는 일정한 규율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니, 『傷寒說意·六氣解』에서 말하기를 “太陽病에서는 足太陽이 ‘寒水를 主승’하는 것이 6~7할이고, 手太陽이 ‘君火로 化氣’하는 것이 2~3할이다. 陽明病에서는 足陽明이 ‘燥金으로 化氣’하는 것이 1~2할이고, 足陽明이 ‘濕土로 化氣’하는 것이 8~9할이다. 少陽病에서는 足少陽이 ‘相火로 化氣’하는 것이 3~4할이고, 足少陽이 ‘風木으로 化氣’하는 것이 6~7할이다. 太陰病에서는 足太陰이 ‘濕土를 主승’하는 것이 9할을 넘어서고, 手太陰이 ‘燥金으로 化氣’하는 것은 1할도 되지 않는다. 少陰病에서는 足少陰이 ‘寒水로 化氣’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足少陰이 ‘君火로 化氣’하는 것은 수백 명 중 한 명 정도이다. 厥陰病에서는 足厥陰이 ‘風木을 主승’하는 것이 8~9할이고, 手厥陰이 ‘相火로 化氣’하

는 것은 1~2할이다.”¹⁰³⁾고 하여 “陰은 易盛하고 陽은 易衰한다.”는 원칙하에서 사람의 질병은 陰盛한 것이 많고 陽盛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적다고 판단하였다.

IV. 結論

黃元御는 『素問』의 五運六氣 학설을 六經의 氣化 학설과 결합하여 『傷寒論』의 六經을 해석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六氣의 司氣와 從化의 규칙을 살피에 있어 인체 ‘陽氣의 盛衰’를 중요시했다.

둘째, ‘中氣’를 중요시하였으며, 太陰 脾臟은 生死의 關鍵이 된다고 보았다.

셋째, 中氣의 衰弱으로 인한 ‘土濕·水寒·木鬱’의 病理觀을 제시하였다.

넷째, 치료에 있어 扶陽抑陰할 것을 강조하면서 滋陰瀉火法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인체의 ‘陽氣’와 ‘中氣’를 강조하면서 한의학의 핵심이론인 ‘五運六氣’와 ‘氣化學說’을 바탕으로 『傷寒論』의 六經病을 해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傷寒論』을 공부한다면 張仲景이 말하고자 한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0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542~543. “太陽之病, 足太陽主令於寒水者十之六七, 手太陽化氣於君火者十之二三. 陽明之病, 足陽明化氣於燥金者十之一二, 足陽明化氣於濕土者十之八九. 少陽之病, 足少陽化氣於相火者十之三四, 足少陽化氣於風木者十之六七. 太陰之病, 足太陰主令於濕土者不止十九, 手太陰化氣於燥金者未能十一. 少陰之病, 足少陰化氣於寒水者無人非是, 足少陰化氣於君火者千百之一. 厥陰之病, 足厥陰主令於風木者十之八九, 手厥陰化氣於相火者十之一二.”

Reference

1. 김동희 외17명.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0.
2. 孫洽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3.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4. 王冰 著.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法仁文化社. 2009.
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6. 劉賓 外1人. 黃元御氣化理論研究. 遙寧中醫藥大學學報. Vol.20 No.10. 2018.
7. 李雲. 中國人名辭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1.
8.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9. 崔桓壽, 金容辰, 尹暢烈.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4. Vol.8.
10. 胡謙, 方向明. 黃元御六氣治方思想探析. 山中醫學院學報. 2012. Vol.13 No.3.
1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1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說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冊·傷寒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